

# 장수농업발전 위해 의기투합

## 김창수 예비후보 “장영수 후보 지지”... 장수군수 후보 단일화 합의 선언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장영수 후보와 장수농업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단일화 합의를 전격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장영수 후보와 조건 없는 후보단일화에 합의했으며 후보직을 사퇴하고 단일화 후보로 장영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장수군수 선거 구도가 상당히 요동칠 전망이다.

김 예비후보는 무너진 장수사람, 무너진 초보문전자, 민주당 후보에게 장수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고뇌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후보 사퇴와 단일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장영수 후보는 민선 7기 장수군을 이끌며 예산 4천억 시대, 장수역사상 최초로 철도 시대 서막을 여는 등 능력이 검증된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장수군수로서 장수농업발전을 위한 장영수 후



김창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무소속 장영수 후보와 장수농업발전을 위한 조건 없는 단일화 합의를 전격 선언했다.

보의 특별한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며 “오직 군민만 바로 보고 장수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연대로 공동 노력하기로 의기투합해 후보단일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후보는 “김창수 예비후보님의 장수농업발전을 위한

빛나는 수고를 늘 기억하고 존경해왔다”며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시어 무거운 마음이나 전군민마를 얻은 바와 다름없듯 반드시 승리하여 김 예비후보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다”고 단일화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나선다

## 31일까지 수매1형 10개 품목 신청·접수

무주군은 오는 31일까지 '2022년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수매1형'에 대해 신청·접수 받는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농가들의 농가소득과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신청대상은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관할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사업은 수매1형으로, 대상품목으

로는 사과(홍로, 후지), 포도(캠벨, MBA, 진옥, 사인머스켓), 생선(참치, 생오미자, 수박(흑미, 블랙위너), 잡곡(조, 수수, 기장), 복분자, 머루, 여름딸기, 천황대추이며, 올해 여름딸기와 천황대추 2가지 품목이 추가돼 8개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화과 공유유통팀 윤순진 팀장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시행방식은

수매1형과 수매2형으로 나뉜다”며 “전(全)농산물을 취급하는 수매2형 사업은 농가의 별도 신청 없이 사업수행자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신청으로 대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8년 12월 농산물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농산물가격안정기금 1백억 원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약 62억 800만 원 4,326농가(8,920톤)가 기금으로 지원을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농촌 일손부족 해소 가속화

##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인력증개센터·외국인 계절근로 등 운영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일손을 돕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먼저 오는 6월 말까지 농촌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하며, 부상이나 고령 등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농가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일손을 요청하면 농촌인력지원상황실에서 군청

전 부서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등과 일손을 연계해주는 것이다.

또한 내국인 인력증개를 위한 농촌인력증개센터 3개소(진안읍, 부귀면, 백운면)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인력풀을 관리하며 일손을 요청하는 농가에게 인력을 연계해준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채용을 군 차원에서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앞서 필리핀 이사벨라주와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48명이 입국했고, 결혼 이민자 가족 추천 제도를 활용해 베트남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27명을 초대를 비롯해 총 99명을 관내 39농가에 배치를 완료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 해결은 우리 농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영농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인력부족 해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취약계층 전력효율 개선 추진

## 무주군, 백열전등·형광등 → LED 조명으로 교체

무주군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백열전등 또는 형광등에 대해 LED 전등으로 다음 달까지 전면 교체한다고 13일 밝혔다. 저효율 전등기구를 밝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력효율을 향상시키고 전기요금 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군은 총 사업비 4,300만 원(국비 2,4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을 들여 저소득층 38가구와 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군은 수요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이달까지 자재구매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각 가구별 LED 전등 교체 공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가구당 LED 전등 3개를 교체해 전기료 절감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화가 기대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ED 조명 교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위한 전력효율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조명환경 개선을 위한 LED조명 교체를 통해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ED 전등의 경우 일반 백열전등 또는 형광등보다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어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건강센터 금연의 날 홍보 캠페인

장수군이 지난 13일 건강센터 금연의 날을 맞아 장계시장에서 금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다가오는 제35회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을 맞이해 주역 주민에게 흡연예방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자발적인 금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개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 리플렛을 배부하고 흡연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금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이날 캠페인은 장수군 모범 운전자회와 함께 운영해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군은 다가오는 27일 장계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역할극 및 미술을 이용한 금연 교육을 실시해 가족과 친지 등 주변 흡연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전달하고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이번 캠페인 금연의 중요성 및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군에서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063-352-87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읍, 농촌 일손 돕기 나서

진안군 진안읍(읍장 정성화)은 13일 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농촌활력과 직원 2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곡리 고추재배농가 고추밭을 찾아 농촌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 돕기는 농작업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한 농가를 찾아 2,000여㎡의 고추밭에서 고추지주대 설치 작업에 일손을 보았다.

본격적인 영농철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작은 손길이지만 공직자로서의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혈압 수치 아는 것이 고혈압 관리 첫 걸음”

## 진안군, ‘세계고혈압의 날’ 맞아 혈압 측정 캠페인 전개

진안군은 5월 17일 ‘세계고혈압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측정 캠페인을 전개한다.

‘세계 고혈압의 날’은 세계고혈압연맹(WHL)이 전세계 사망 위험요인 1위인 고혈압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그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는 질환으로 심장병, 뇌졸중, 콩팥병 등 합병증을 발생시켜 조기사망 할 수 있어 운동, 금연, 절주,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예방 및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30~40대에서 고혈압 인종이 낮고 질환 관리가 가장 저조한 질병이

어서 관심이 필요하다.

혈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군은 17일 진안군청 광장을 시작으로 19일에는 진안 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혈압 측정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은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하에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 및 1:1 맞춤형 건강상담과 심뇌혈관예방 9대 수치 안내를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꾸준한 혈압 측정으로, 자기 혈압 수치를 아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첫 걸음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고혈압 예방 관리의 필요성을 알게 되길 바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마을복지협동조합 ‘마을복지, 길을 묻다’ 포럼

진안군 마을복지협동조합은 지난 13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당에서 ‘마을복지,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마을복지협동조합은 사회복지와 마을, 공간 분야 전문가와 마을 리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복지의 대안 탐색 및 확산에 필요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진안군마을축제의 대표적인 특징인 학습교류축제로 공동의 주제를 정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학습의 장이며 지역민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역할을 위해 추진됐다.

포럼은 박기연 마을복지협동조합 이

사장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마을복지의 개관과 마을복지 운영사례 등의 기초 발제와 마을복지의 실천적 발상, 유휴시설 활용등의 마을복지 실천방안을 주제로 한 지정 토론 후 참여자의 열린 자유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기연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마을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구체적으로 찾고 문제를 도출하여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토론을 시작하는데 의의 있다”며 오는 7월 14일 개최될 두 번째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